

‘도내 지역 맞춤형 상담’ 권역별 진로진학센터 운영

전북교육청, 4월부터... 전주·익산·군산·정읍·남원·완주 등 6곳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월부터 권역별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진로진학센터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상담 및 관리,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통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주제에 맞는 수요자 중심 상담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진로진학센터는 전주센터(전주·김제), 익산센터(익산), 군산센터(군산), 정읍센터(정읍·부안·고창), 남원센

터(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센터(완주·진안·무주) 등 6개가 구축된다. 전주와 김제 학생은 전주센터에서, 완주와 진안, 무주 학생은 완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6개 센터에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많은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과 파견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입지원관과 파견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를 찾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주일에 한두 차례는 야간 상담도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해당 권역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이동 진학 컨설팅, 학부모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진로·진학 센터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로·진학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바란다”며 “상담센터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학력신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성껏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호주 주요대학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

양오봉 총장 등 방문단, 호주 커틴대학·서호주대학 찾아 복수학위 등 교류 확대 협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유학생 5천 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 등 방문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호주의 주요 대학을 찾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양 총장 일행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호주로 이동해 호주 커틴대학과 서호주대학을 방문했다. 먼저 커틴대학에서는 Xiaotian Zhang 글로벌담당 부총장을 접견하고, 기존의 파견어학연수를 넘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 대학 학생과 교직원 등은 유학생 유치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전북대 단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필딩코리아’ 등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학부 과정에서 2+2 복수학위 프로그램과 석사과정 1+1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해 전북대 유학생 유치 기반을 다졌다. 이어 서호주대학에서 연구 협력 강화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논의했다.



설 연휴 기간 서호주대학을 찾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 방문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이 대학과 농생명 및 공학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복수학위제 추진 등에 뜻을 같이 했다. 양오봉 총장은 “호주 주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대학이 글로벌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간담회와 실질적 교류를 통해 많은 우수 유학생을 전북대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3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정기인사 단행

전북교육청, 총 1498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3월 1일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교장·원장 승진 43명, 교감·원감 승진 45명,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153명 등 총 1,498명에 대해 이뤄졌다. 또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이성기 교원인사과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유효선 중등교육과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에 한숙경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에 남궁상은 정읍남초등학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에 송영임 이리부초등학교장을 각각 발령했다. 이어 분청 중등교육과장에는 최은이 전주평화중 교장을, 문체건강과장에는 강양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을, 교원인사과장에는 김낙훈 전주지곡초등학교장을 각각 발령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정책기



조인 학력신장의 과감한 추진과 공공 교육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중심의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수석교사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14일 열린다. /장은성 기자

지방공무원 행정역량 강화·교육현장 업무 개선

전북교육연수원, 행정연구회 운영... 14일까지 자율과제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지방공무원의 행정역량 강화 및 교육현장의 업무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행정연구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행정연구회는 실천적 과

제 중심의 학습 및 연구를 실시하는 자율적인 연구회로, 지정과제 14팀, 자율과제 26팀으로 총 40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자율과제 행정연구회는 오는 14일까지 공모를 시행, 선정 결과는 20일 발

표된다. 한편 지정과제에는 △효율적인 민원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발굴(총무과) △친환경 통학버스 ESG 실천(행정과) △시설사업 예산편성 기준단가 표준화에 관한 연구(시설과) △학교 디지털 인프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미래교육연구원) 등이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도내 대학 총장들, ‘GBCH 챌린지 동참’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6일 전했다. GBCH 챌린지는 성공적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지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GBCH’는 올림픽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이다. 이에 박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하계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도민의 지지를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이번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병춘 총장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주교대는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박노준 우석대 총장

우석대학교 박노준 총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된 박노준 총장은 다음 주자로 이진숙 군장대 총장과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을 추천했다. 박노준 총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역 주민들에게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어 “전북의 발전과 올림픽 유치가 지역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대학 공식 SNS 채널에 박노준 총장의 챌린지 동참 관련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Life2.0 종합평가 ‘A등급’

전주대, 최고등급 획득... 지역사회와 연계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모델 구축에 높은 평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교육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2차년도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대는 고도화형(2유형)과 광역지자체연계형(3유형) 부문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 지역사회와 연계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모델 구축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생교육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보화 지원 구축, RPL 운영을 위한 관련 데이터와 학습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적절하고 우수한 점 △대학-지역 간,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한 점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성과의 확산, 전북 RISE 기본계획의 평생교육 분야에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구축 도모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기반을 구축해 고등평생 교육체제를 수립하고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 △대학-지역 간,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지역문제 해결 리빙랩 및 교수법 확대 사례가 우수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호원대학교와의 ‘365 전북 컨소시엄’을 통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에 기반한 6대 핵심 과제를 설정,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과제를 확대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속에서 대학-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연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RISE 체계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배전대-군장대-전주기전대, 전문대학 우수사례 성과 공유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5일 행복기숙사 컨벤션홀에서 도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간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군장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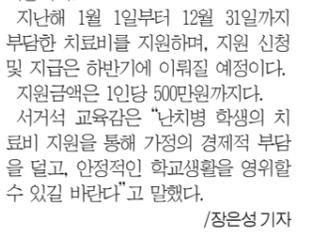
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비해 각 대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단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에 각 대학은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한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RISE 도입 이후 대학과 사회와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본인 부담 치료비의 90% 하반기 중 신청·지급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형 당뇨 학생을 포함한 46명에게 8,400만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초 본인부담 진료비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0%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이 치료비의 대부분인 사례가 많아 지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지원했다.

올해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가 지원된다.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1형당뇨, 암, 심·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난치병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 신청 및 지급은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0만원까지다. 서거석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 도내 전문대 3곳 ‘맞손’

전주비전대-군장대-기전대 이차전지 인력 양성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5일 군장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와 신산업분야(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삼자간 공유·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산업분야(이차전지) 인재 양성을 위한 공유·협업 체계 구축과 산학협력 역량강화,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을 도모에 주된 목적을 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 윤형완 교무처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이차전지신산업선도전문대학사업단 박희식 단장,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부총장, 김광수 교무학생처장, 군장대학교 전근환 교학처장, 이견업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공유·협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연계 체계 확립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이차전지 분야 공동 교육과정(정규·비정규·재직자 교육과정 등 포함) 개발·운영 △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자격과정 포함) 운영 △이차전지 분야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대학 간 시설, 기자재 등의 교육자원 공동 활용 △대학 간 이차전지 분야 공유·협업 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 및 인적 교류 등이다. 우병훈 총장은 “신산업 분야(이차전지)의 인력 양성을 위해 두 대학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군장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와 함께 전북지역 이차전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와 공동으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2.0 사업을 통해 전북 특화산업 수요맞춤형 이차전지 제조·조립 공정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